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17년 11월 17일(금) (음력 9월 29일) Пятница 17 ноября 2017 г. № 45(116762)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기적의 섬들에서>인형극 축제 폐막**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4회 <기적의 섬들에서>국제인형극 축제가 펼쳐졌다. 축제에 참가한 9개국의 20개 극장들은 58회 상연을 했다. 아르메니아, 체코,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슬로베니아, 몰도바, 일본, 폴란드 배우들과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톡, 마가단, 페트로자워츠크, 쿠르스크, 이와노워, 니즈니 뇨고로드의 러시아 아티스트들이 사할린을 찾아 인형극을 선보였다.

<사할린 에너지>회사 후원으로 실시된 <찾아가는 축제>로 야쿠치아와 크릴 인형극 배우들은 오하, 노글리키, 포토나이스크, 코르사코브에서 순회공연을 할 수 있었다.

지난 13일 성황리에 진행된 폐막식에서 인형극 배우들은 사할린 관람객들과 축제에 대한 사랑을 멋진 공연으로 표출했다. 사할린인형극장은 그로드노, 딸린, 도쿄에서 공연과 이와노워에서 열리는 <무라베이닉> 국제축제에 초청을 받았다고 인형극장측이 전했다.

▲축제 폐막식에서.

(사진/ 사할린인형극장 제공)

**본사 이예식 기자, 언론인 모임 자리에서 사할린주두마 표창장 받아**

올해 러시아언론인연맹 사할린지부는 설립 60주년 기념과 관련하여 여러 행사를 펼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언론인-시인들의 모임이 있었고 지난 10일(금)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쿠즈네초브 시도서관에서 원로언론인들의 간담회가 있었다.

올해 지방신문 7개는 창간 70주년을 맞이했고 언론인 22명은 기념일(설립 60주년, 언론인연맹 가입 35, 40, 45주년 등등)을 맞이한다고 러시아기자동맹 사할린지부장 류보워 카시안이 밝혔다.

그는 지방을 다니면서 여러 신문 기념일을 이미 축하하기도 했는데 이날 자리에서 장기간 기자로 활동한 몇몇 분들에게 사할린 언론인연맹의 감사장을 수여했다. 또한 이날 사할린 언론인

연맹의 추천과 사할린주에 대한 공로로 새고려신문사 이예식 사진기자와 <오늘의 유즈노사할린스크>신문사 세르게이 타라카노브 편집장에게 주두마 표창장을 수여했다. 카시안 지부장은 수십년간 민족지의 <눈>으로 활동하는 이예식 기자는 흑백사진의 훌륭한 장인이라고 표현했다.

사실 동료 언론인들 속에서 인정을 받고 이런 큰 상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상은 없을 것 같다. 이날 평소에 자주 만나지 못했던 주내 언론매체 대표들 약 30명이 화기에 애한 분위기에서 지난 날을 회상하며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나누었다.



러시아언론인연맹 사할린지부 60주년 마지막 행사는 12월에 열릴 예정이다.

(배순신기자)

**단신**

**체호브센터 관장 대행으로 타치아나 코르네예와 부임**

사할린 체호브극제극장센터의 관장 대행으로 타치아나 코르네예와가 부임했다. 사할린주 출신으로 극동국립철도대학(하바롭스크)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부터 사할린 체호브센터에서 조감독으로 활약하면서 배우로서도 무대에 올랐었다. 또한 체호브센터에서 극장행사 조직부 부장, 2012년부터는 부관장을 역임했다.

체호브센터 관장으로 근무했던 엘레나 후다이베르디예와는 사할린을 떠나게 되면서 지난 7일 사임했다.

**네벨스크 시장으로 알렉산드르 샤벨니크**

지난 14일(화) 네벨스크시의회는 네벨스크시의 새 시장을 승인했다. 네벨스크시의회는 다수가결로(참석 유권자 14명 중 13명 찬표) 알렉세이 샤벨니크를 시장으로 선출했다.

전엔 사할린의 시장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했지만 법이 변경되면서 2017년부터 시장 후보들은 콩쿠르에 나서 몇 단계 검증을 거친 후 최종 시의회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전에 샤벨니크는 네벨스크시에 위치한 사할린해양전문학교(콜레즈) 교장으로 활동하고, 올 봄에는 나홉카 극동해양전문학교 교장을 역임했으며 네벨스크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해왔다.

시민들사이에서 존경을 받으며 거의 10년간 우수 관리자로 인정받고 네벨스크시를 잘 이끌었던 박 블라지미르 시장은 지난 9월 중순에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예산에 대한 공청회 개최**

11월 21일 정오 12시 사할린주 유니버설과학도서관 회의실에서 2018-2020년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고 시행정부 홍보실은 전했다. 공청회에 모든 희망자들은 참석이 가능하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자치단체 학과목 경시대회 출발**

14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2017-2018 학년도 전국학생경시대회 지방자치 단계가 출발했다. 학과목경시대회에는 26개 학교의 7-11학년 학생 약 1900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학교 경시대회 우승자와 수상자들로서 한 달간 16개 과목별 대회에서 우승을 향해 실력을 겨루게 된다. 첫 경시대회는 러시아어였다.

경시대회의 목적은 관심 학과목의 지식을 심화시키고 학력 경시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촉진하려는 데 있다. 학과목 경시대회의 결과 발표와 시상식은 12월 20일에 이뤄질 것이라고 시 홍보실은 전했다.

**새고려신문**

**2018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76루블리 28코페이크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알립니다!**

새고려신문 다음 호는 12월 1일에 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본사 편집부

Следующий номер газеты выйдет 1 декабря 2017 г.

올해 한국 부산에 러시아 대안학교가 설립되었다. 이 학교 설립자이며 교장은 사할린 동포 출신인 정영순(러시아명 정 잔나 블라디미로브나) 선생이다. 본사 배순신 기자는 정영순 교장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 저는 '정 잔나'라는 이름은 첫 사할린미인대회가 열렸을 때 처음 듣게 되었어요. 그 당시 선생님이 학교 졸업반이셨는데 대회에 출전하여 러시아인 처녀들과 경쟁하여 2등을 하셨죠? 그때 한인동포 처녀가 미인대회에 참가한 것도 화제 였고 외모도 아름답지만 지식, 판단력, 영민함 이런 것들이 높게 평가되었던 게 아닌가 생각되요.

- 저한테는 선발대회에 나간 것이 주변 사람들의 기대만큼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발레 무용단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우리 발레단 선생님이 추천했을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당시 젊었을 때의 일이 그저 저의 인생의 한 부분인지 뭔가 훌륭한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떨 때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때의 얻었던 인기는 좋은 점도 있었지만 나쁜 점도 많았습니다. 그것보다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실 더 많습니다.

- 한국어를 전공하신 이유는요?

- 실망하실 텐데요... 사실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어느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확실히 잘 아는 졸업생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 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학교를 잘 졸업했기 때문에 (은메달 받았음. 그 당시 하늘이 별따기 였음. - 기자주.) 그때 인기가 많은 동양학과에 입학하기로 했습니다.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한국어를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몇 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선택이 저의 운명이었다고 봅니다. 누구나 자기 조상의 언어, 역사, 전통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을 깨달았구요. 그래야만 과거와 미래가 이어지며 세대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 한때 모스크바국립대학교 한국어 교수로 지내셨는데 몇 년 전부터 한국에 계시네요.

## 러시아와 한국: 두 언어, 두 문화를 자신의 것으로 여긴다 부산에서 러시아 대안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사할린 동포 출신 정영순 박사



### 정영순

1972년 이르쿠츠크에서 태어났음. (사할린 동포인 부모는 그 당시 이르쿠츠크 공과대학 재학 중이었음).

#### 학력:

1990-1995년 - 유즈노사할린스크 국립사범대학 동양학부 한영과(전공 한국어·영어 교사).

1996년 -1999년 - 모스크바국립 종합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대학 박사과정

2000년 - 언어학 박사학위 취득.

2016년 - 모스크바국립종합대학교 러

시아어와 러시아 문학대학. 외국인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방법. 복수 전공

#### 경력:

1995-1996년-모스크바국립종합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대학, 한국어교사

1996-2004년 -모스크바국립종합대학교 아시아·아프리카대학, 한국어강사.

그 이후 여러 봉사활동을 하였음. 한때 봉사차원에서 부산 러시아 학교 교감으로 활동.

2017년 - 부산 러시아 대안학교 설립·운영.

기혼, 슬하 1남1녀.

저서: <한국어의 영태범주>연구서.

- 우리 가족이 한국에 나와 산 지 거의 8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들의 엄마예요. 아들, 딸에게 조국의 개념을 심어 주고 싶었고 시댁 어른들이 영주귀국하셔서 곁에 가까이 있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잠깐 살아보자 했는데 어느새 8년이 넘었네요.

- 이번에 선생님께서 부산 러시아 콜레즈(러시아 대안 학교) - 아주 큰 프로젝트를 시작 하셨는데 학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네, 러시아 콜레즈라는 대안학교는 러시아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러시아 학교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 하고 통합의 과정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통한 한국역사, 한국 문화, 한국전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과과정을 모국어인 러시아어로 교육을 받아 서울 주

재 러시아 대사관 학교에서 러시아 학교 졸업 시 국가시험을(ЕГЭ)를 통과하여 러시아 중등 학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 한국사회와 한국문화 이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어능력시험(ТОPIK) 통과를 돕고 한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다문화 아이들이나 한국학교에 다니는 러시아 아이들을 위주로 "토요일학교" 활동도 합니다. 그것은 모국어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열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성인반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사이에서는 러시아 문화를 대중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발레단은 부산시의 국제행사, 다문화 행사에 참석하여 러시아 문화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은 누구신지요?

- 우리는 주로 러시아에서

선생님들을 섭외했습니다. 정말 경험이 풍부한 전문 교사들입니다. 러시아어 선생님은 극동연방대학교 소속 김나지아 교사였고, 영어 선생님은 모스크바에서, 수학선생님은 톰스크에서, 역사학 선생님은 페르미에서 초청했습니다.

- 수업을 시작한 지 두 달 반이 넘었는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 모든 프로그램에서 학생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러시아 이민자들의 언어와 사회-문화 적응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이 추구하는 세계화, 국제화 과정에도 큰 도움을 줄 첫걸음이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 여름방학 때 학교가 러시아에서 온 학생들을 위한 캠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여름방학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러 한국에 오는 우리 사할린동포 아이들을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심으로 여름 캠프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무상으로 실시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더 있다고 들었습니다.

- 네, 지난 주에 성인들을 위한 <러시아 김나지아에서의 밤> 기획 일환으로 첫 모임을 가졌는데 주제는 법률교육이었어요. 한 러 법률 전문가인 저자이며 고려인 권리보호를 변호하는 고민석 변호사는 이날 주거 임대 계약과 노동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질문도 많았었습니다.

원래 <러시아 김나지아에서의 밤>행사의 목적은 러시아 원어민들에게 한국 정착에 도움을 주려는 데 있습니다.

다음 모임의 주제는 <한국대학. 외국인들을 위한 입학 절차>입니다. 다음은 한국에서의 사업. 부산의 역사, 한국으로 이민 등이란 주제입니다.

- 러시아 콜레즈를 설립하는데 협조에 주신 분들과 기관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 맞습니다. 혼자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큰 프로젝트였거든요. 우선 우리 워스트리코브 알렉산드르 세르게예위츠 러시아 부산총영사님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총영사님은 러시아 사람들의 통합운동과 부산 시민들 속에 러시아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크게 애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 친구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 선생님께서 김나지아 프로젝트를 추진하시는 동시에 한국어 연구서도 이번 여름에 편찬하셨고 9월 중순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렸던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 학술회에도 참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 2000년도에 쓴 박사논문을 이제서야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문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블라디보스토크 학술회에도 참가한 이유는 한국으로 이민을 온 고려인, 러시아사람, 사할린 동포들에게 거둬지는 문제들에 러시아와 한국 국가기관들의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모으는 데 있었습니다. 저의 발표 주제는 'CIS국가 한인 동포 자녀들의 언어 및 사회문화 적응 문제'였습니다.

- 선생님께 있어 한국어와 한국은 무엇입니까?

- 이제 한국어와 한국은 저의 전공뿐만 아닙니다. '러시아에 살았을 때 저는 한국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한국에 나오니까 러시아 사람이네요.'란 말을 주변에서 자주 듣게 됩니다. 저는 이 말보다는 우리에게 두 나라, 두 언어, 두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호프 작가는 "사람이 언어들을 아는 만큼 그 사람의 삶도 다양해진 다."라고 했습니다.

## 이모저모

### 세계우수자원봉사자 중 5명이 사할린의 청년들

지난 10월 올림픽 도시의 소치에서 제19회 세계 청소년대학생축제가 막을 내렸다. 180개이상의 국가들에서 18세부터 35세까지 각기 다양한 분야의 청년 전문가들 5만여 명이 대규모 행사에 참가했다.

러시아 여러 지역 및 해외에서 온 18세이상의 청년들 5000여 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은 적극적인 행사 조직과 진행에 참가했다. 자원봉사자 신청 캠페인은 2017년 4월에 마감되었고 그 결과 청년 3만 5000여 명이 등록했다. 사할린지역에서는 이와 유사한 행사의 조직과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 20명이 선정되었다고 주스포르츠부 홍보실은 전했다.

세계청소년대학생축제 총결로 세계우수자원봉사자 500명이 선정된 가운데 그중 사할린의 청년들 5명(알렉세이 첸스키흐, 마리아 쿠즈네초와, 파벨 레워츠킨, 안나 쿠즈미나와 막심 리트위넨코)이 포함되었다. 사할린 자원봉사자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했는

데 외국인 참가자들과 공관 수행, 인증 서비스, 언론(대중보도수단), 러시아 참가자들과 활동, 대표단 마중·수행, 축제의 개막과 폐막 예식 수행 등이다.

현재로서 자원봉사자 없이는 행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곧이어 사할린지역에서는 두 개의 대규모 국제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6회 <청년 전문가(월드 스킬스 러시아)>러시아기능인 전국챔피언 결승대회와 <2019 아시아의 아이들> 첫 국제동계게임이 치러진다.

이와 관련하여 곧 자원봉사자 선발로 종합 활동이 시작되는데 러시아연방 다른 지역 자원봉사단들의 훈련, 자원봉사자들의 태도 설정과 기능적 임무 등에 대한 활동이 강화된다.

### пятеро сахалинцев названы в числе лучших волонтеров мира

В октябре в олимпийском Сочи завершился XIX Всемирный фестиваль молодежи и студентов. Более 50 000 молодых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в возрасте от 18 до 35 лет из более чем 180 стран стали участниками этого грандиозного события.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организации и проведении принимал волонтерский корпус,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го вошли более 5000 человек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и зарубежья старше 18 лет. Заявочная кампания для претендентов

в добровольцы фестиваля завершилась в апреле 2017 года, по ее итогам был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более 35 000 молодых людей. От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было отобрано 20 волонтеров, которые имеют богатый опыт проведения и сопровождения подоб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По итогам фестиваля был определен ТОП-500 лучших волонтеров мира, в который вошли сразу 5 сахалинцев: Алексей Ченских, Мария Кузнецова, Павел Лёвочкин, Анна Кузьмина и Максим Литвиненко.

Сахалинские волонтеры работали по самым разнообраз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 волонтер атташе с иностранными участниками, служба аккредитации, СМИ, работа с российскими участниками, встреча и проводы делегаций,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и закрытия фестиваля.

Сегодня ни одно мероприятие не проходит без команды волонтеров.

В скором будущем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римет два круп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мероприятия: финал VI национального чемпионата п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мастерству "Молоды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WorldSkills Russia) и первы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зимние игры "Дети Азии — 2019".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стартует комплексная работа по рекрутингу волонтеров, усиленная подготовка команд и из других субъектов РФ, определение позиций и функциональных обязанностей волонтеров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8면에 계속)

영주귀국자들의 소식

등지 든 사할린 동포들, 귀국 8년 기념식 개최

음성군으로 영주 귀국한 러시아 사할린 동포들이 귀국 8주년을 맞아 지난 12일 음성읍 내의 한 식당에서 조촐한 기념식을 열었다.



2009년 사할린 동포 35가구 70명은 음성군과 대명적십자회 등의 도움으로 음성에 등지를 마련해 영주 귀국했다. 현재는 사망하거나 경기도 안산 등으로 이주해 54명이 음성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동포들은 이날 음성군에서의 거주 이야기 등으로 회포를 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앞서 이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음성군의회는 '음성군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음성군은 △인권보호 교육·홍보 △한국어와 기초생활 적응 교육 △군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 간 이해와 소통·교류 확대 △의료기관·법원 방문 시 통역·번역 서비스 △응급구조 등 보건의료 △문화·체육활동 기회 제공 △군 내 영주귀국주민 단체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선 음성희망누리 봉사단체 회장을 맡고 있는 우성수 군의원에게 사할린 동포들이 감사장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대명적십자회 회장을 역임하고 사할린 동포 지원조례를 대표발의한 우 의원은 해마다 사할린에서 찾아오는 3,4세대 동포 손자손녀들에게 한국을 안내하는 등 봉사를 펼쳐온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충청매일)

렛츠런 인천연수문화공감센터, 사할린 동포 심리치료 지원

한국마사회 렛츠런 인천연수문화공감센터가 지난 3일 인천지역 사할린 동포들을 위한 심리치료비를 후원했다.

센터는 인천시 연수구 사할린동포복지회관에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부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

사할린동포복지회관은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노인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단체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요리와 원예교실 등 이곳 노인들의 취미생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센터는 이번 후원을 통해 노인들의 심리적 안정, 인지기능 향상, 소통 창구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중선 센터장은 "지역 소외계층인 사할린동포 어르신들을 돕는 복지사업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꿈을 이루는 행복한 연수를 만들기 위해 사회

공헌과 지역행사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고, 이를 계기로 더 많은 기업들이 사회기여 활동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기장군, '사할린 동포 그들과 공감하다' 인문학 콘서트 성료 정관도서관에서 인문학 토크콘서트 열려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10월 30일 정관도서관에서 기장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의 삶을 조명하는 인문학 토크콘서트를 군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2017 인문주간 개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 주변 이웃인 사할린 동포의 삶과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해 '사할린동포, 그들과 공감하다' 라는 주제로 우리 춤 한마당, 샌드아트 영상 및 사진전시회, 전문가 대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부산문화재단에서 사할린동포를 주제로 제작한 샌드아트 영상은 사할린 동포 삶의 모습을 사실적이면서 애잔하게 전달하여 잔잔한 감동과 함께 많은 참석자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정관 사할린 동포 인문회 박척야 회장님, 1996년 현장취재 장편소설 '면땅 가까운 하늘'을 출간하고 20년만에 '사할린'으로 재출간한 이규정 소설가, 부경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문학평론가이신 남송우 교수님이 한자리에 모여 사할린동포를 주제로 진솔한 토크를 이어나



가 사할린동포에 대한 인문학적 질문과 함께 사색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 정관 주민은 "우리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사할린 동포에 대하여 생소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토크콘서트를 통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기장군수는 "사할린 동포 중 영주귀국자는 우리나라 25지역에 3,500명, 부산에는 정관지역에 65가구 115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사할린 동포 문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아픈 역사로 앞으로도 사할린 동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반으로 사할린 동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일요신문)



한인 추념비 표지판 설치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금년 7월 말에 사할린주한인회는 홈스크시 행정부와 27인 한인피살자 추념비(포자르스코예촌 근처) 현장 정돈, 관리에 대한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라 홈스크시 행정부는 체계적으로 추념비 현장 청소를 하고 얼마 전에는 도로에서도 볼 수 있도록 추념비를 알리는 큰 표지판을 세웠다. (배순신 기자)

80주년 연해주 한인 강제추방 및 79주년 사할린 강제징용을 위한 "국가총동원법" 제정에 즈음하여

(2016년 김포 재외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에서 보고한 자료)

재러시아 한인 현황과 한-러 경제협력에 활용

전 소련-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명예교수 전학문 박사

재러 한인 디아스포라는 기원과 원인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제1 그룹의 역사는 다음과 같다.

1860년에 아편전쟁에서 패전 당한 중국정부가 영국-프랑스 연합군의 강요로 체결한 북경협약에 따라 아무르강(黑龍江) 오른쪽 강변과 우수리강(烏蘇里江) 지류에 인접한 현재 연해주라고 부르는 광활한 토지가 분리되자 러시아 외교관들은 이 영토를 즉시 장악하였다. 4년이 지난 1864년에 중국 국경에서 약 14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포시에트"라고 부르는 지역에 한국의 14가족이 처음으로 이주하면서 그해부터 러시아 영토로 한인의 이주사가 시작되었다.

그 후 이민이 계속되어 1880년에는 6,700명까지 한인 농민들이 늘어났다. 19세기 말에 연해주의 러시아 총독 그로데코브 장군은 거대한 무인의 미개간지를 개척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한인 농민들의 이민을 격려하고 비옥하고 거대한 토지를 그들에게 부여한 후, 1910년에는 한인 인구수가 약 3만 명까지 증가하였고 1917년에는 한인들의 인구수는 러시아인을 포함해 연해주의 총 인구수의 1/3이나 되는 9만 명까지 불어남에 따라 한국어 학교까지 개교하였고 신문출판사도 설립하였다. 한인들의 이민 원인은 한반도의 지방 관료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바치는 세월에 시달려 빈곤한 생활을 참지 못해 국경을 넘어 가깝고, 주인도 없는 비옥한 토지를 개척하여 새 살림을 꾸리려는 목적이 이민의 동력이 되었다. 한편 1910년 한일 합병조약으로 국권이 피탈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한민족은 자유를 갈구하며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잔인한 경찰의 억압과 잘 무장된 일본군 및 헌병의 압도적인 군력으로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이 힘들어지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만주의 간도지역과 러시아의 연해주로 넘어가서 항일투쟁을 계속하였다. 동시에 한인들의 이민수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1922년에 러시아의 국내 전쟁이 끝난 후 소비에트 정권은 인터내셔널의 의무를 배풀기 위해 연해주에 새로운 조선학교 300개 이상을 개교하였고 우수리스크시에는 조선사범학교, 조선신문사, 조선극장, 블라디보스토크에 조선사범대학까지 설립하였다. 그러나 소련 영토인 연해주에 인접한 일본의 식민지가 된 한반도에서는 일본 정권이 한국학교를 일본학교로 전환하여 일본제국주의의 교양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원인과 1930년대 후반부터 일본이 소련을 침략할 수 있다는 혐의가 발각되어 소련 당국은 한인들을 모두 잠재적 원수와 스파이가 될 수 있다는 의혹을 품고 승진한 한인 당간부, 행정기관 지도자, 소련군 장교들,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에 대한 의심을 갖고 무조건 교도소에 수감하고 살해한 사건이 빈번해졌다. 드디어 1937년 말과 1938년 초에 갑자기 모든 성인들을 체포하여 총살한 후 17만 명 되는 한인 가족들을 가축 운반용 차량에 태우고 새로운 거주지인 중앙아시아, 주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동시켜 사막 지역과 갈대밭에 흩어놓았다.

죄없이 강제로 추방당한 노인들, 여성들과 아이들로 구성된 한인들은 추운 사막 벌판에 땅을 파고 위에 갈대잎으로 급하게 오두막을 지어 칠패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3분의 1의 유아를 포함한 많은 어린이와 노인들이 추운 겨울에 얼어 죽거나 굶어 죽었다. 사막지방에 억류된 한인동포들은 모래로 된 황무지를 개척하며 쌀과 야채를 재배하여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계속)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осточная и Северо-восточная Азия – это регион, где с середины 19 века постоянно сталкивались интересы продвигающейся на Восток Российской империи, осваивающей северные территории Японии, теряющей силы китайской империи Цинь и пытающейся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вышеназванными противоречиями и обрести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В этот период начались крупные геополитические изменения, которые привели к изменению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границ, как мирным, так и военным путем. Передел продолжался до оконча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но часть проблем так и осталась нерешенной до сегодняшних дней. Добровольная и насильственная миграция населения того периода времени имеет отклик и в наши дни – миграция приводила к оседанию населения, отсутствию возможности вернуться к формированию диаспор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оседних стран, а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к желанию вернуться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Однако, при всех противоречиях существующих в регионе, необходимо помнить, что у сопредельных стран, и людей там проживающих, одна общая история.

Попытка осмысления и анализа транснациональной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а и привела нас, группу ученых из сопредельных стран к формированию совместных проектов, основная тема которых – это осмысление опыта и возможност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го сосуществования. Один из таких проектов – это проект «Послевоенный Сахалин: культура и образование 1945-1965». Два других – проект «Регион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е сосуществование: сравнительный анализ Хоккайдо и Тайваня» и «Роль музеев как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объекта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медиума в жизни региона».

Результатом работы проектов стали выставка «Послевоенный Сахалин: культура и образование 1945-1965»,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Сахалинским областным художественным музеем, а так же дв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еминара, проведенных в Саппоро 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дея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исследовани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й ситуации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в послевоенный период возникла одновременно у исследователя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Ю.Дин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архи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у С. Пайчадзе (Хоккайд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занимающейся оставшимися на Сахалине японцами.

Послевоенный Сахалин (1945-1949) являлся уникальным местом где проживало японское, корейское и русскоязычное население. Каждая из этих трех групп населения имела свои национальные школы. Буквально вслед за вводом советских войск на Сахалин и формированием Граждан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открываются школы для русскоговорящих детей, в октябре возобновляют работу японские, а с конца 1945 начинают формироваться корейские школы.

До 1945 года на Карафуто существо-

Как уже сообщалось в октябре Сахалинском областном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музее прошел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еминар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ая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равнитель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и музеефикация», посвященный 70-лет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овременных границах.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краткое изложение выступления одного из инициаторов данного семинара Светланы Пайчадзе, научного сотрудника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Медиа и коммуникации» Хоккайд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ая история послевоенного Сахалина

Пайчадзе С.С.



вало 273, так называемых, кокумин гакко (народных начальных и средних школ) Кроме того, 14 средних и 12 средни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школ. В них обучалось 80 тысяч учеников. Несмотря на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й состав обществ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се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учились на японском языке.

Естественно, это было насаждением япон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Корейские дети в японских школах имели проблемы, связанные с их этническим происхождением и освоением японского языка. Однако, многие корейцы Сахалина очень тепло вспоминают свои школьные годы. Они успешно закончили японские школы и в дальнейшем использовали японский язык, как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так и в работе.

23 сентября 1945 года на Сахалине было установлено Граждан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С этого же времени начинается переселение граждан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на остров. Гражданское управление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предавало огромное значение открытию школ, так со 2 по 7 ноября начали работу 7 русских школ в различных городах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в Тоёхара предполагалось открыть самую большую школу – среднюю с интернатом на 250 человек.

Однако не меньше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лось нормальной работе японских школ, так как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онимала, что для нормальной жизни япон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репатриация которого должна была продолжиться несколько лет, японские школы так же должны работать. Так 9 сентября 1945 года, выходит предписание руко-

водства Граждан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сполняющему обязанности губернатора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Оцу Тосио, о восстановлении работы японских школ. В данном предписании говорится о том, что несмотря на указания управления, ряд школ не работает, они не обеспечены топливом, зарплата учителям отдельных школ не выплачена, подготовка школ к зиме не проведена. Предписывается незамедлительно принять меры п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работы школ.

В конце 1945 года были открыты и первые корейские школы. Процессы открытия корейских школ были схожими как в Японии, так и на Южном Сахалине. «Первое поколение корейцев, оставшихся в Японии в период колониализма училось в японских школах, они стали создавать корейские школы для того, что бы научить своих детей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и культуре». В основе создания школ лежала идея «подготовки к возвращению на Родину». Изначально эта же идея была у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они стали обращаться с ней к областным властям.

Советск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того времени была направлена на поддержание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ньшинств, характеризуя систему народ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при японцах, Управление по гражданским делам подчеркивало «Школ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ньшинств не было (корейских, для айнов)». Однако, несмотря на критику положения всех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ньшинств при японском правлении, в том числе айнов, национальные школы были открыты только для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Школы начали открываться с конца 1945 года, а в 1946 году был издан приказ об увеличении их числа.

Все школы, включая японские, находились во введении отдела народ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Управления по гражданским делам. В японских школах корректировали программы, убирая такие предметы как география и история. Проводились специальные семинары для японских учителей.

Корейские школы открывались по инициативе снизу, их основной целью было освоение корейскими детьми родного языка. Однако, несмотря на «инициативу снизу», - корейские школы так же были частью советской системы. С 1946 года с материка на Сахалин начинают приезжать учителя корейцы, одной из задач которых являлась идеологическая обработка мест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Однако, несмотря на такой негативный момент, как идеологический контроль за работой школ, следует отме-

тить позитивную сторону – дети могли продолжать/начать образование на родном языке в школах, для которых существовала экономическая поддержка государства.

Кроме того, необходимо отметить, что многие из оставшихся на Сахалине японских детей, после закрытия японских школ пошли в корейские. Основной причиной, по которой японские дети шли в корейские школы, было то, что многие из них были полностью или частично (чаще делом) усыновлены корейцами. Они получали корейские фамилии и имена и учил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Многие из них скрывали в школах, что они японцы, по причине существующей после войны «обратной дискриминации», однако как и в случае с довоенным корейским населением, японцы, закончившие корейские школы, стали членами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и пользуютс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и работе.

Русские школы в национальном плане были достаточно пестры. Здесь обуча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очти всех союзных республик, аборигенные народы Сахалина, китайцы, поляки, немцы, чехи, финны. А после 1949 года, также корейцы и японцы.

Однако, следует заметить, что подобная уникальн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ситуация на Сахалине, до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освещалась исследователями, и тем более, материал по данной теме не являлся доступным жителям Сахалина. Так возникла идея, выйти за рамки исключительно научного проекта и создать выставку по данной теме. Благодаря участию в проекте научного сотрудника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О. Хай, идея реализовалась, и в конце сентября выставка была открыта.

Организация семинаров, как в Японии, так и в России, позволила нам представить материал для слушателей обеих стран. Кроме того, в семинарах участвовали специалисты по другим регионам и темам. Так например, Е.Фудзино (Хоккайд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представил материал по музеям Тайваня, наглядно показав, как изображение одних и тех же фактов национальной истории, может совершенно по разному быть представлено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олитической или идеологической установки организаторов. Доклад, Т.Хираи (Хоккайд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в свою очередь, осветил проблемы промышленного наследия Сахалина, являющегося одним из многих типов обще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Сахалина.

Хотелось бы надеяться, что проделанная нами работа помогла многим взглянуть на историю с нового ракурса.

25 ноября в 15 часов в Доме культуры "Родина" состоится 10-й молодежный фестиваль-конкурс корейской песни.

Возраст участников от 7 до 35 лет.

Главные призы конкурса - два авиабилета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Три лауреата в номинации от 7 до 17 лет, три лауреата в номинации от 18 до 35 лет будут награждены ценными призами.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до 22 ноября по телефонам: 464025, 510482. Оргкомитет

### 노루의 사향을 팝니다!

г. Иркутск, тел. : 8-924- 544-70-82  
e-mail : she.xiang@yandex.ru  
ooo «мускон - соболь»

реклама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премьер Госсовета Китая выразили надежду на нормализацию отношений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и премьер Госсовета Китая Ли Кэцян встретились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Маниле в рамках ежегодного форума АСЕАН. Они подтвердили решимость приложить максимум усилий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ернуть двусторонние отношения в нормальное русло. Они обострились после того, как Сеул принял решение разместить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американские комплексы ПРО THAAD. Как отметил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иногда приходится сделать девять шагов назад, прежде чем продвинуться на шаг вперед». Он выразил уверенность в том, что 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Сеулом и Пекином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выйдут на уровень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кооперативного партнёрства». В свою очередь, Ли Кэцян отметил наличие «позитивных изменений» в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ях, пожелав их возврата к нормальному состоянию.

## Север ответил на запрос Юга о посещении Кэсона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компаний

Север ответил на запрос южно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ы об одобрении визит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мпаний в Кэсонский индуст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с целью проверить факт несанкционирован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мощностей. 10 ноября на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ом сайте «Уриминчжокири» появилось сообщение, в котором данный запрос был назван «наглой уловкой».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Юг сам нарушил все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о гарантиях инвестиций и правила работы комплекса, прекратив его работу в одностороннем порядке. Другое издание «Мэари» указывает, что сегодня меж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полностью заблокированы из-за враждебных действий Юга. Отмечается, что в ситуации отсутствия двусторонних обменов странно требовать гаранти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воих граждан. Издание указало, что для начала РК должна свернуть политику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единого народа, реализуемого совместно с США. Ранее 4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мпаний РК, работавших в Кэсонском индустриа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подали заявку на посещение Кэсона в министерство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Ведомство направило запрос в КНДР, но Пхеньян долгое время сохранял молчание.

## Южнокорейские фильмы вызвали интерес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инофестивале в Стокгольм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фильмы вызвали интерес на 28-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инофестивале в Стокгольме,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т с 8 по 19 ноября. 60 стран-участниц представили 151 фильм. Среди них пять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артин - «Ночью у моря одна», «Злодейка», «Грабители», «День», «Супердевушка». Некоторые из них особенно заинтересовали гостей фестиваля. В этой связи все билеты на их показ были быстро раскуплены.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картина «Ночью у моря одна» упоминалась в качестве номинанта на награду за режиссёрскую работу, а «Супердевушка» в категории короткометражных фильмов.

## Во Вьетнаме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мировой культуры Хошимин-Кёнчжу

11 ноября во Вьетнаме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мировой культуры Хошимин-Кёнчжу, призванная познакомить местных жителей с южно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Она продлится по 3 декабря. По данным оргкомитета,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мероприятия состоялась перед мэрией Хошимина. Состоялось представление народных песен и танцев двух стран. Выставка проходит на площади перед местной мэрией и в разных местах по всему городу.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я РК и Вьетнам организовали совмест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концерт, показ мод, а также выставку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Кроме того, в рамках выставки свою культуру демонстрируют 32 страны. Gyeongju Culture EXPO проводится в третий раз. Первые два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шли в 2006 году в Камбодже и в 2013 году в Турции.

## В РК нужно укрепить контроль за состоянием здоровья хронических больных

В РК выявлена необходимость улучшения системы наблюдения за хроническими больными.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докладе ОЭСР за 2017 год, представленном 13 ноября. Отмечается улучшение уровня лечения острых заболеваний,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инфаркт миокарда, инсульт и другие.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015 год в РК уровень смертности от ишемического инсульта среди больных старше 45 лет составил 3,9%. Речь идёт о показателе в течение 30 дней с момента госпитализации. Средняя отметка по ОЭСР составляет 8,2%. Кроме того, уровень выживаемости в течение пяти лет после диагностирования недуга составил 71,6% у больных раком толстой кишки и 86,3% - раком молочной железы. 81,8% проходивших амбулаторное лечение указали, что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е в определении метода лечения. 77,9% отметили, что врачи уделили им достаточно времени. Между тем, указано на проблему контроля хронических заболеваний. Уровень госпитализации больных такими болезнями оказался почти вдвое больше, чем средний показатель по ОЭСР. Это указывает, что после первоначального лечения контроль за состоянием больных очень слабый.

(RKI)

##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импозиум 2017

Под эгидой Институ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АН, Фонда истории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и 8 ноября 2017 г. в стенах Московского Дома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состоялось масштабное и значимое событие в области изучения ис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рейско-российский симпозиум «Новые достижения и перспективы исследований ис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и

шла на протяжении целого года. В связи с этим Ли Хёнджу поблагодарил организаторов за их плодотворные усилия. Ли Хёнджу назвал основные цели и задачи симпозиума: оценка истории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Кореи и России с учетом исторического фона, анализ вклада учёных двух стран в формирование перспектив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изучени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опоставление взглядов научной общности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исторические события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ыра-

тил актуальность темы симпозиума в контексте «новой северной политики» президента РК Мун Чжеина, ориентированной в значительной мере на Россию, в то время как современный этап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характеризуется поворотом на Восток. Южнокорейский дипломат отметил такие приоритетные задачи в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как усиление гуманитар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углубление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между народами России и Кореи, укрепление стабильности,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добра соседства в регионе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Работа симпозиума была разделена на три основные секции: 1) исследования древней истории в России и Кореи; 2) настоящее состояние и новые достижения в исследовании ис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период нового времени (конец XIX – начало XX в.); 3) новые темы и перспективы в исследовании ис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слушателей вызвали выступления исследователей-археологов обеих стран Гельман Е.И. (Институт истории, архе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народ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ВО РАН) и Ким Ынгука (Фонд истории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на тему изуч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а Бохай (발해, VIII-X вв.) в России,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 объектив научных изысканий ученых добавилась новая территория – Краскинское городище, граничащее с территорией КНДР. Раскопки Краскинского городища важны для изучения боха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России, так как дают классические материалы для сравнения с материалами других памятников –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риморья уже открыто около 150 памятников периода государства Бохай. Докладчиками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подробные чертежи, проекты, связанные с проведением раскопок в районах бохайских городищ, а также изображения собственноручно найденных исследователями при раскопках артефактов – копий, толкательного камня и других. Примечательно также и то, что Гельман Е.И. и Ким Ынгука с конца 90-ых гг. ведут совместные раскопк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непрерывно обмениваются опытом, новыми сведениями, что, безусловно, способствует только обогащению их общей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базы.

Исследовательница Ким Хёнсук (Фонд истории СВА) выступила с докладом на тему особенностей изучения истории ранне-средневеков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Когурё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Учитывая т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о, что памятники Когурё находят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итая,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и, Росс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этих стран является необходимым условием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качествен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в данной области, подчеркнула докладчик.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А. Шарафетдинова**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отдела Кореи и Монголии  
Институ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АН



открытия симпозиума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выступил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ГБУ «Московский до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А.Б. Дрожжин.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Московский до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крупнейших методических площадок в Москве, реализующих задач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До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призван стремиться к обмену опытом не только с российскими регионами, но и с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А.Б. Дрожжин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данны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симпозиум наметит новые точки сближени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Он также рассказал участникам о многолетне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Дома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с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ой Москвы в таких областях как молодёжная политика, культура и туризм. В завершении своей речи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пожелал всем плодотворной работы.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к участникам конференции обратился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Фонда истории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Ли Хёнджу. Он поздравил участников с открытием мероприятия, подготовка к которому

ботка общей позиции по различным трактовкам исторических событий в регионе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ФГБУН Институ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АН В.Я. Белокрыцкий отметил важность проводимого симпозиума для обмена мнениями по акту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исследований ис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реди авторитетных учёных обеих стран.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корееведческая наука в России за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достигла уровня, когда наиболее актуальными становятся вопросы новых достижений и перспективного развития исследований истории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России и Кореи. В.Я. Белокрыцкий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меющего давнюю историю и традиции Институ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АН с Фондом истории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способствует успеху симпозиума, позволяет участникам мероприятия вынести на обсуждение наиболее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а также он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продолжение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Заместитель Пос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и Ха Тээк отме-

### Сахалинские аграрии отметил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праздник

10 ноя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шло торжестве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в честь Дня работник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й отрасли. В Доме культуры «Родина» собралось около двух сотен гостей. Власть чествовали ветеранов и заслуженных передовиков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отрасли, вручали почётные грамоты,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В праздничной программе значились и концертные номера. В самом начале гостям показали песочное шоу под музыку на тему «История развити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Официально День работника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отмечается во второе воскресенье октября. Но уже много лет в регионе чествуют тружеников села еще и в ноябре, когда закончен сбор урожая, переведен на зимне-стойловый период скот, достигнут ряд показателей, и в целом можно подвести определенные итог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года.

Министр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ихаил Кузьменко поблагодарил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за добросовестный труд, преданность делу, отметил успехи, которых добились в отрасли – достичь их удалось благодаря настоящим профессионалам.

«Результаты работы в этом году радуют, но на достигнутом нам нельзя о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Итог нашей работы – это напряженный труд всех тружеников отрасли, благодарю вас за ваши усилия. Хочу сказать особые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нашим ветеранам, которые своим трудом создали историю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 являетесь для нас примером», – обратился Михаил Кузьменко.

С теплыми словами поздравлений обратились к работникам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депута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Заслуженный работник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РФ Виталий Гомилевский, архиепископ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й и Курильский Тихон.

За добросовестный труд и высокие достижения в отрасли отличившиеся работник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были награждены ведомственными и региональными наградами.

Все реализуемые в отрасл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екты и программы направлены на уменьш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завозимой продукции, на то, чтобы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смогли приобретать качественную и доступную по цене продукцию.

Сегодн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по темпам роста производства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Регион полностью обеспечивает себя картофелем и яйцом. По итогам 2017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удовлетворить потребност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молоке на 42%, по мясу на 16%, по овощам открытого грунта на 91%, защищенного грунта на 83%.

Продолж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вух животноводче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на 2900 голов дойного стада. В птицеводстве реализуется проект по созданию бройлер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на 10 тыс. тонн мяса птицы. В свиноводстве реализуется проект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свиновод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до 62 тысяч голов в год. В центральной и северной частях Сахалина создаются условия по содержанию до 2000 голов КРС мясн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АО «Совхоз «Тепличный» реализует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проект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современного теплич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готовлено 157 тысяч тонн кормов, что на 58% превышает результат 2016 года. Впервые с советских времен собрано 730 тонн ячменя на корм животным.

По итогам уборочной кампании в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ях и фермерских хозяйствах собрано 30 тыс. тонн овощей, что почти на 2 тыс. тонн больше уровня 2016 года. Во всех категориях хозяйств получено 46 тыс. тонн овощей. У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тепличных овощей – АО «Совхоз «Тепличный» и АО «Красногорская заимка» – собрано более 5 тыс. тонн овощной продукции, план сбора превышен на 40%.

Планируемый валовый объем производства картофеля во всех категориях хозяйств в текущем году – 100 тыс. тонн, в том числе в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ях и фермерских хозяйствах собрано 46,5 тыс. тонн.

По итогам 2017 года в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ях и крестьянских хозяйствах планируется надоить 21,8 тыс. тонн (108,5% к 2016 году) и выйти на рубеж 5,8 тонны молока на фуражную корову – это лучший результат продуктивности за всю историю сахалинского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С учетом хозяйств населения по итогам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получить 29,9 тыс. тонн молока.

Птицефабрика «Островная» планирует по итогам года поставить на столы сахалинцев 2000 тонн мяса птицы, в том числе 1700 тонн охлажденного мяса бройлеров, а АО «Мерси Агро Сахалин» – 2360 тонн свинины. За счет развития мясного скотоводства в реализацию поступит более 2000 тонн говядины. В сельхозпредприятиях и крестьянских хозяйствах будет произведено 7,1 тыс. тонн мяса, что на 39% превысит уровень прошлого года. Во всех категориях хозяйств планируется получить 8,3 тыс. тонн мяса.

В этом году поддержку на обустройство («подъемные») получили 8 молод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Гранты на развитие получили 17 начинающих фермеров и 8 фермерских хозяйств на развитие семейных животноводческих ферм. Поддержку дали 44 садоводческим объединениям. Есть программы по поддержке для обладателе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гектара.

###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сширяют фирменные торговые сети.

Сегодня наряду с крупными торговыми сетями в регионе развивается формат фирменной торговл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окупатели отдают предпочтение продукту, путь которого от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цеха до стола потребителя максимально короткий. Факторами, влияющими на выбор покупателя, являются качество, широкий ассортимент, приемлемая цена продукта. Как раз эти стандарты могут максимально обеспечить производители, организующие свою фирменную торговую сеть. Кроме того, замечания и вопросы, возникающие у потребителя, в максимально короткий срок направляютс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производителю, что позволяет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произвести доработку, решить возникшие вопросы и исправить ситуацию.

С целью снижения торговой наценки и продвижения соб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и продолжают уделять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созданию фирменной торговой сети. Планомерно проводятся работы,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увеличение количества и расширение географии размещения фирменных торговых объектов в регионе.

Так, в текущем году ГУСП «Птицефабрика Островная» открыла фирменные торговые павильоны в городах Холмске, Невельске и Макарове.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ланируется ввести в эксплуатацию торговый объект в городе Долинске. Кроме того, предприятие реализует формат выездной торговли. Это далеко не единствен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в регионе, развивающее фирменную торговую сеть.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бласти 135 предприятий-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имеют собственные торговые объекты, общая численность которых увеличилась за 9 месяцев года на 15 и составляет на 1 октября 2017 года 406 объектов.

В ноябр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на ул. Пограничной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 районе дома 22, планируется открытие комплекса павильонов, в которых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а продукция региональных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развивающих формат фирменной торговли.

С реестром объектов фирменной торговли региональных товаро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в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на сайте министерства торговли и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Выставка «Многоликие острова» прошла в минувшие выходные в Южно - Сахалинске

В прошлую субботу, 11 ноября, в выставочном зале Сахалинского ЦНТИ прошла Областная выставка декоративно - прикла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в которо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40 мастеров из разных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Талантливые участники представили сотни изделий руч-

ной работы, изготовленных в различных техниках и стилях.

Свои работы представили мастера из 10 муниципа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ов Александровск - Сахалинского, Анивского, Долинского, Корсаковского, Ногликского, Невельского, Холмского, города Южно - Сахалинска и Углегор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района.

На выставке «Многоликие острова» работала экспертная комиссия в составе:

1. Тикк Наталья Ивановна – дизайнер;
2. Горохова Раиса Самойловна – искусствовед;
3. Каспрва Алена Георгиевна – методист II категории.

Комиссия определила победителей в пяти номинациях:

- Номинация «Посвящение 70-лет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Мария Чупа (гравировка по стеклу), МО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Ногликский»;

- Номинация «Приро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Мария Горбач (войлоковаление) МО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Город Южно - Сахалинск», Анна Гусевская (фюзинг) МО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Ногликский»;

- Номинация «Быт, промыслы и труд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Паскит Людмила (изделия из рыбьей кожи) МО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Ногликский»;

- Номинация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Альбина Фисенко (графика): МО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Александровск - Сахалинский район»;

- Номинация «Ностальгия по прошлому» – Людмила Котельникова (вышивка крестом) МО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Город Южно - Сахалинск», Яна Русских (обереговые куклы) МО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Город Южно - Сахалинск»;

- Номинация «Мастер Сахалина» – Андрей Степанов (резьба по дереву) МО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Город Южно - Сахалинск», Ольга Андреева (поскутное шитье) МО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Город Южно - Сахалинск», Наталья Рубанова (войлоковаление) МО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Город Южно - Сахалинск».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выставки «Многоликие острова» вручены каталоги, изданные по результатам I Областного фестиваля «Палата ремесел». В 2018 году запланирован второй выпуск с новыми именами.

### СахГУ второй год подряд выступает региональн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Диктант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6 ноября 2017 года во всех 85 субъект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остоится Всероссийский географический диктант. Он пройдет на специально подготовленных площадках в вузах, школах, библиотеках, научных институтах, детских центрах и т.д.

Одной из региональных площадок стал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Масштаб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организованное Российским Географическим Обществом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дседателя Попечительского совета РГО,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ройдет в России во второй раз. В числе главных задач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акции – независимая оценка географической грамотности россиян, мотивация граждан к изучению географии своей страны.

В 2016 году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1464 площадки в 85 субъектах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то в 7,1 раза больше, чем в 2015 году.

Стать участником Диктанта можно, обратившись на площадку его проведения. Площадка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расположена по адресу: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оспект 33, актовое здание (1 этаж). Адреса других площадок можно найти на сайте [dictant.rgo.ru](http://dictant.rgo.ru).

Диктант проводится в единый день – 26 ноября 2017 г., начало проведения Диктанта в 12.00 по местному времени.

В день проведения Диктанта Региональная площадка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 следующий график работы:

- 11.00 – начало работы площадки;
- 11.00-12.00 – сбор, регистрация участников и выдача бланков для написания Диктанта;
- 12.00-12.15 – викторина, инструктаж по заполнению бланков для написания заданий;
- 12.15-13.00 – написание Диктанта;
- 13.00-13.10 – сбор заполненных бланков для написания Диктанта;
- 13.10 – закрытие площадки

Публикация правильных ответов на сайте [dictant.rgo.ru](http://dictant.rgo.ru): 1 декабря 2017 года.

Публикация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результатов на сайте [dictant.rgo.ru](http://dictant.rgo.ru): 25 декабря 2017 года.

Приглашаем всех желающих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географическом диктанте.

Координатор региональной площадки: Баландина Евгения Олеговна, т. 89624191292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офильных министерств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재외동포 장학생 봉사단(OK Friends) 고려인마을에 전하는 '사랑의 김장 나눔'

#### 11일 재단 직원 및 재외동포 장학생 안산 상록수 체육관에서 김장봉사활동 진행

#### 직접만든 김장김치, 행복키트 등 안산 고려인마을에 전달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지난 11일 안산 상록수 체육관에서 재외동포 장학생 봉사단 70여 명과 함께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2017 재외동포재단 OK Friends 봉사단 사랑의 김

장을 느끼고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우성 이사장은 "안산 고려인 마을에 정착한 재외동포들이 모국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한민족으로



장 나눔 행사'는 안산 고려인마을 내 고려인들에게 김장 나눔을 통해 한민족의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재단 직원들과 재외동포 장학생들이 만든 김치는 행복키트와 함께 고려인지원단체 '너머'를 통해 안산 고려인마을에 전달됐다.

한국에서 수학하고 있는 장학생들은 이번 김장 나눔 행사를 통해 한국 고유의 '김장문화'체험과 함께, 한민족 간의

서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문화체험을 통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김장봉사활동은 OK저축은행과 안산시청과의 협업을 통해 대규모로 진행됐으며, 총 9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4톤의 김치와 행복키트 7백 박스를 만들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전달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 영구 귀국 사할린동포와 함께하는 경기시낭송협회 시낭송

경기 시낭송협회(회장 최병두)는 지난 켈리사 공연에 이어 영구 귀국 사할린동포와 함께하는 2017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가 지난 10월 26(목) 오후 7시 신장동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열렸다. 감성연주자 최병두 경기시낭송협회 회장이 '고향의 봄' 연주로 행사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특별 이벤트로 독일에서 귀국한 김연숙 시인이 독일인 치과 의사 남편과 함께 참석해 사할린 교포들을 위로하기 위해 '대동강아 말해다오'라는 시를 낭송하며 고향을 떠난 사할린교포들과 감정을 연대했다.

공창배 오산문화원장은 운동주 탄생 백주년을 기념하는 운동주 시인의 일화를 전하며 시극을 통해 운동주 시인과 함께 운동주 탄생을 기념했다.

공혜련 시낭송가가 가을 노래로 꼽고있는 박목월 시인의 시 '이별의 노래'를 노래로 불러 가을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날 가족 모두가 출연해 김구연의 시 '꽃씨 한 개'를 어머니 이승미(경기도시낭송협회원) 시낭송가가 낭송하고 '지우개 엄마'를 딸 문정원 학생과 기형도의 시 '엄마 걱정'을 아들 문휘성학생이 낭송해 가족애의 화기에 애함을 드러냈다.

팬플루트 연주는 '잊혀진 계절'을 이춘중 팬플루트 연주와 박인환의 시 '목마와 숙녀'를 조충현, 김순자 시낭송가가 합창으로 낭송했다.

JS예술단 소속의 바리톤 이진원씨가 '넬라환타지아'와 베이스 김준호씨의 '백학' 이진원, 김준호씨의 합창인 '10월의 어느 멋진 날'로 가을을 전했다.

시극은 경기도시낭송협회원 장훈익, 황석연, 조은주, 최명숙, 공혜련, 박종순 시낭송가 6명은 '운동주, 그 별을 노래하다' 시극 공연을 이상욱 사무국장의 나레이션으로 진행했다.

마지막 엔딩으로 사할린 동포 30명과 경기도시낭송협회원이 '사할린 아리랑'을 합창하며 마무리했다.

(오산신문)

### [우리말로 깨달다]

### 빛과 빌다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책을 읽다가 인도유럽어나 잉카어 등에서 <빛>에 해당하는 단어가 범죄나 잘못과 어원이 같다는 부분에서 갑자기 우리말 <빌다>가 떠올랐다. 여러분은 빛이 있는가? 어떤 빛이 있는가? 우리는 물질적인 것만을 빛이라고 하지 않는다.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 때도 빛을 졌다고 한다. 어찌면 은혜라는 말은 빛의 고급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다. 빛을 갚는다는 말이나 은혜를 갚는다는 말이 그다지 다르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고 있는 빛은 그게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간에 참 불편하다.

빛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기는 어렵다. 빛이 사람과 사람을 잇고, 사람과 사회를 잇는다. 불편하게. 빛이 폭력을 부르고, 빛이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 빛이 사람은 살인으로 이끌기도 하고, 자살로 몰아가기도 한다. 범죄의 대부분이 빛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빛과 죄가 어원적으로 같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빛이 범죄가 되는 것이다.

빛을 지면 자꾸 봐달라고 빌게 된다. 빛이라는 것은 원래 빌린 것이라는 뜻이다. 빌리다의 원 단어는 빌다이다. '빌어먹다' 등의 표현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빌다는 어원적으로 빛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인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빌다라는 단어가 용서를 구한다는 의미의 빌다와 음이 같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단순히 동음이의어라 생각했었지만, 빛과 죄나 잘못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달리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말의 빌다도 빛과 용서의 의미를 함께 갖고 있었을 수 있겠다.

우리는 무엇을 빌리고 있는가? 물질적으로 보면 빛은 착취의 좋은 구실이 된다. 빛은 구렁텅이라고 표현할 만큼 헤어나기가 쉽지 않다. 한 번 빛을 지면 갚기가 힘든 구조이기 때문이다. 빛을 지고, 갚고 하는 것이 자유롭다면 사람들은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예전의 상황을 보면 빛의 시작이 게으름이 아닌 경우도 많다.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재지변을 당하게 되면 빛을 진다. 가뭄이 들어 빛을 지게 되고, 홍수가 나서 빛을 지게 된다. 빛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말이다.

요즘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게을러서 빛을 지었는가? 열심히 살았지만 등록금 때문에 빛을 지고 집세 때문에 빛을 진다. 우리가 빛을 지는 게 우리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많다.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도 빛만 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답답한 일이 아닌가? 청년들도 빛이 많다. 어디 청년뿐이라? 나라도 빌터미다.

정신적인 빛은 어떤가? 우리 누구에게 정신적인 빛을 졌는가? 아마도 우리에게 정신적인 빛을 가장 강조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일 것이다. 우리도 모르는 죄를 이야기하기도 한다. 전생에 죄도 우리 책임이고 우리의 조상이 지었는지도 모르는 죄도 우리의 책임이다. 웬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지는 죄만으로도 속죄가 벅찬데, 나도 모르는 죄까지 내가 갚아야 한다니 어께가 천근만근이다. 나도 기억나지 않는 은혜도 또 다른 빛으로 다가온다.

이런 은혜 혹은 죄를 갚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비는 것이다. 열심히 기도하고 빌다. 은혜를 주어서 감사하다고 빌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고, 죄를 갚겠다고 빌다. 빛을 탕감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지지 않은 빛은 좀 탕감해 주었으면 한다. 내가 진 빛도 시간을 두고 갚을 수 있게 해 주었으면 한다. 빛이 범죄를 불러서는 안 된다. 빛을 받으려고 하는 이가 오히려 큰 범죄자인 경우가 많다는 점은 새삼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 사할린한국교육원 행정 직원 채용 공고

- 1. 채용 인원 및 담당 업무**  
가. 채용인원 : 1명(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음)  
나. 담당업무 : 일반 행정, 한국어 통·번역, 한국어 교육 지원, 자료 관리 등
  - 2. 응모자격**  
가. 2017년 12월 1일부터 근무할 수 있는 자  
나.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다. 한국어 통·번역 가능자  
라. 컴퓨터 활용 가능자(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마. 공무 수행에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
  - 3.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2017.12.1.부터 근무, 수습기간 3개월 후  
근무 성과에 따라 재계약 (1년 단위)  
나. 근무시간 : 09:00 ~ 18:00
  - 4. 제출서류**  
가. (필수) 한국어/러시아어 이력서 1부 (별도 양식 없음)  
나. (필수) 한국어/러시아어 자기소
- 개서 1부 (별도 양식 없음) \*사진 포함  
다. (필수)경력 증명서(졸업증명서 포함) 1부  
라. (선택)어학능력 및 컴퓨터 사용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마. 면접 통과자는 건강진단서, 범죄사실증명서를 제출  
(내용에 문제가 있을 시 채용이 되지 않음)
- 5. 서류제출 시한** : 2017. 11. 24. (금) 18:00까지. \* 적격자가 없을 경우 기간 연장
- 6. 서류 제출처(사할린한국교육원)**  
가. 제출 방법 : e-mail 혹은 직접 방문 접수  
나. e-mail 주소 : joohwank@korea.kr  
다. 문의처 : 50-56-96
- 7.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해 2차 면접 실시  
(면접대상자는 서류 전형 통과자에게 개인적으로 통보함)  
\* 제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 <솔네츠나야 카펠> 앙상블 전국창작콩쿠르에서 1등

유즈노사할린스크시의 보컬 앙상블 두 팀 <솔네츠나야 카펠>과 <초콜라드니 콘트라스트>는 제23회 <2017러시아의 일출> 어린이창작 콘테스트·축제에 참가했다.

우랄지역부터 극동지역까지 러시아 29개 지역에서 참가자들이 모여든 축제는 블라디보스토크 <오케안> 전국어린이센터의 12교대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11월 10일 어린 참가자 22명이 사할린으로 돌아왔다.

이들 두 앙상블은 주문화센터에서 진행된 행사들에 적극 활동해왔고, 주와 시, 전 러시아적 수준의 다양한 콩쿠르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축제 결과 제4청소년예술학교의 <솔네츠나야 카펠> 앙상블은 <합창> 부문에서 1등을 수상하고, 중앙 아동음악학교의 <초콜라드니 콘트라스트> 앙상블은 <호로보예 빠니예(낭독합창곡)> 부문에서 우수팀 10위에 (총 40개 예술단 중) 올랐으며 앙상블의 솔리스트인 알리나 고로호와는 콩쿠르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콩쿠르 외에도 학생들에게는 유익한 프로그램들도 많았다. 인솔 교사의 말에 따르면 딱딱한 시간표가 주어지지 합창수업, 예술창작, 유명 인물과의 만남, 장애인 올림픽 참가자에 대한 영화 관람과 그 영화 주인공들과 만남 등, 장애인올림픽 선수들과 교제를 나눈 후 학생들은 성공에 향한 길이 그리 쉽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어떤 방법으로 승리에 도달할 수 있는지도 깨닫게 되었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 앙상블 "Солнечная капель" занял первое место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дет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Два вокальных ансамбля "Солнечная капель" и "Шоколадный контраст"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XXIII фестивале-конкурсе дет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Российский восход — 2017". Мероприятие, на которое съехались участники из 29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от Урала д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остоялось в рамках работы 12-й смены ВДЦ "Океан"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10 ноября 22 юных участника фестиваля вернулись на остров.

Оба коллектива — активные участники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роводимых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х концертов, а также победители различ-

ных конкурсов город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уровней.

По итогам фестиваля вокальный ансамбль "Солнечная капель"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4 стал лауреатом первой степени в номинации "Хоровое пение", "Шоколадный контраст" центральной детской музыкальной школы — вошел в десятку лучших(всего 40 коллективов), а солистка Алина Горохова получила звание дипломанта конкурса.

Помимо конкурсн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у ребят была очень насыщ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 словам педагогов, практически каждая минута была расписана: вокальные занятия, творческие мастерские, встречи со знаменитыми людьми, просмотр фильма о настоящих фактах про паралимпийцев и встреча с этими героями. После общения с параолимпийцами ребята смогли увидеть сложную дорогу к успеху, понять, каким путем достигается побед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 일본 음악가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에게 클래식 음악 연주

11월 19일 14시 사할린예술전문콜레즈에서 일본 음악가이며 차이콥스키 모스크바음악대학교 재학 중인 교헤이 이마주미와 시노 히다키의 공연이 열린다. 공연은 유즈노사할린스크일본총영사관의 주최와 사할린주문화고문서보관부의 후원으로 조성되었다. 입장은 자유며 관람석은 한정되어 있다.

공연 프로그램에는 19와 20세기의 위대한 작곡가들(리스트, 슈만, 슈베르트, 라흐마니노프)의 클래식 음악과 일본 음악이 소개된다.

문의 전화 72-55-30(유즈노사할린스크 일본총영사관)이라고 예술콜레즈 홍보실은 전했다.

### Японские музыканты сыграют для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классические композиции

19 ноября в 14:00 в Сахалинском колледже искусств состоится концерт японских музыкантов, студентов Московской консерватории имени Чайковского Имазуми Кёхеи и Хидэки Сино. Концерт организован генеральным консульством Япон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региона. Вход свободный, количество мест ограничено.

В программе концерта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а классическая музыка великих композиторов XIX и XX веков (Листа, Шумана, Шуберта, Рахманинова), а также японская музыка.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72-55-30 (генконсульство Япон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колледжа искусств.

(사할린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사할린주 창설 70주년  
사할린주한인회 25주년 기념 축제

## 제10회 사할린 한민족청소년 노래자랑

**일시:** 2017년 11월 25일 15시  
**장소:**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로지나»문화회관  
**주최:** 사할린우리말방송국  
**후원:** 한국여성가족부, 사할린주한인회, 아시아나항공 사할린지점

**시상내역:** 대상 : 사할린 - 서울 왕복 각 부분별 항공권  
학생 7-17세 1,2,3 등 시상  
대학생 청소년 18세-35세 1, 2, 3 등 시상

참가신청은 11월 21일까지입니다.  
동포여러분,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연락처:** 사할린우리말방송국 (46-40-25) 주한인회 (51-04-82)

사할린한민족청소년노래자랑 조직위원회

## 한국방문 체험수기 공모

새고려신문사는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한-사할린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방문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응모자격:** 대한민국 정부 지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사할린 주민 누구나

**공모부문:** 한국방문 체험수기(글 종류 및 언어 무관)

**작품주제:** 모국방문(적십자사), 초청검진(국립국제보건의료재단), 재외동포재단 초청사업(한국어교사연수, 세계한인청소년(대학생)모국연수, 영비즈니스포럼,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을 통해 체험한 대한민국 방문 후기 및 소감

**공모기간:** 2017년 12월 20일까지 새고려신문사로 우편 및 메일 발송

**시상내역:** 상장 및 상금(최우수 1명-300달러, 우수-1명 200달러, 장려-2명 100달러) 수여 외 우수작은 새고려신문 게재 예정.

SAKH.COM БИЛЕТ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Покупай онлайн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a href="mailto:skr@sakhalin.ru">skr@sakhalin.ru</a>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